

사찰관련 사업 5건 등 쪽지예산 무더기 반영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전남도의회, 추경안 심사 마무리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비 2억 통과  
파크골프장 등 16개 사업 20억 삭감

전남도의 2021년 첫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 사업비 2억원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사업비·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비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대폭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는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찰(寺刹) 관련 사업을 대거 쪽지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자초했다.

15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전남도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지원 사업(6억 편성→3억6000억원 확정),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비(5억→4억원),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비(82억→76억원) 등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된 16개 사업에서 약 20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비(3억 2000만→4억20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촉 지원(0→5000만원), 119생활안전 순찰대 운영(0→5000만원) 등 30개 사업에서 19억원을 증액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도민 직접 수혜 사업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에서는 상임위(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한 조리실무사 인건비 5억2000만원을, 기초학력 지원 예산으로 전액 증액하는 등 총 8억 원을 삭감하고 6억원을 증액했다. 조리실무사 등 교육청 노동자들은 “노사(전남교

육청과 노동자) 합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도의회가 삭감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을 접가·도의회 항의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리실무사 등 인력 충원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삭감된 예산으로 전남 학생의 기초학력을 증진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도의회는 그러나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안 심사에서 쪽지예산으로 다수 반영했으며, 이들 사업은 사찰(寺刹) 문화재 정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 모현관 고문서 데이터베이스화(DB화, 0원 편성→1000만원), 강진 무위사 수목대제(3000만

원), 구례 화엄사 금정암 단청(1억원), 강진 지방사 주변정비(산신각 신축 7500만원), 보성 총절사 주변 정비 사업(3000만원) 등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시급성이 떨어져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제외됐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전남도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우리땅 독도 지키기”

14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독도수호를 위한 한반도기 게양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7개월만에 재개 ‘남도한바퀴’ 인기 폭발

7개 코스 예매시작 5시간만에 매진

7개월여만에 운행을 재개한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하면서 매력적인 여행에 목마른 관광객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코스를 시범 운행하는 ‘남도한바퀴’가 지난 7일 예매 시작 5시간 만에 전체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남도가 안전에 중점을 뒀 28인승 우등버스에 17명만 태우고, 남도한바퀴 탑승객과 차량뿐만 아니라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코로나 일상화로 지친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도 한몫했다.

특히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시범 운행 첫날인 14일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과 채형욱 금호익스프레스(주) 상무가 직접 나서 차량 출발 전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광객 불편 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남도한바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행 전후 차량 소독과 환기를 하며, 탑승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는 등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는 탑승자에게는 출발지인 유스퀘어에서 탑승 20분 전에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광약자의 관광요금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휠체어리프트버스도 도입했다. 매일

둘째 주 수요일 보성·순천의 무장에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8월까지 운행하며, 관광객 수요에 따라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KTX와 남도한바퀴를 연계한 나주역 출발 순환형버스를 운행한다. 이 상품은 1박2일간 나주, 장흥, 강진, 완도, 영암, 해남, 진도를 자유여행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당초 유스퀘어와 광주송정역에서만 탑승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다른 지역 출신이 많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전남관광 편의를 위해 나주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코스도 마련했다. 남도한바퀴는 2주간 시범 운행 후 7월 1일부터 전체 24개 코스를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기자 노트

## 제 탓 앓고 거짓말, 남 탓만 하는 지자체



박진표  
정치부 차장

지난 10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전남(9일)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 붕괴 사고 브리핑을 한 뒤 곧바로 취재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4월 4일 동구청장 주택 붕괴 사고 이후 (동구청에) 건설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도 시가 직접 나서 허가관청(자치구)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광주시의 공문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동구청의 업무 행태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후 공문 발송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광주시의 느슨한 행정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재개발 사업 허가·관리 감독자인 임택 동구청장에게 집중됐다. 임 구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확인 중이며, 추후 발표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는데, 유독 ‘사고 현장의 안전 관련 민원은 없었나’는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구청장은 “구청에 온라인 등 여러 방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안전 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임 구청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이 지난 4월 7일 동구청에 ‘학동 4구역 재개발 건축물 해체(철거) 관련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 요청’이란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시민은 “철거현장 바로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전막과 파이프로 차단하는 것이 인명사고

(를 막을 수 있을 지) 불안해서 알린다”는 내용 등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뒤늦게 “해당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점을 파악 중”이라고 인정했다. 임 구청장의 거짓 답변을 떠나, “동구청이 사고 두달 전 시민이 접수한 민원만 제대로 해결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지난 13일에도 이 시장과 임 구청장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대책 발표’를 위해 다시 만났다.

이들은 이날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 기원을 시작으로 대책 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지목하고, 건설공사현장부터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평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특별점검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A4 4장 분량의 발표문 중 이번 사고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광주시 시민안전실과 동구청 등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자성과 대책이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굳이 찾자면,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과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두리뎠실한 한 줄이 전부였다.

광주시가 사고 발생 5일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합동대책 발표문은 언론 등을 통해 시민에게도 전달됐다.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엔 합동대책에 대한 기대와 격려보다는, 광주시와 동구청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태 등을 꾸짖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lucky@kwangju.co.kr

코로나 대응 인력 조기 배치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광주시, 공채 일정 한달 단축

100억 들여 내년 7월 완공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인력을 조기 배치하려고 지방직 공개채용 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채 일정은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22~23일, 필기 합격자 발표 7월 2일, 면접시험 7월 19~26일, 최종 합격자 발표 7월 30일로 조정됐다. 필기 합격자 발표일을 1주, 면접 기간을 3주,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일(애초 9월 3일)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필기 합격자의 학력·경력, 자격·면허 등은 애초 공고문의 면접시험 최종일인 8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입증하면 인정해 일정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응시생이 없도록 했다. 특히 간호, 보건, 보건 연구사, 의료기술 등 보건직은 8월 초 신규자 교육을 거친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공사가 15일 시작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대상자로 선정돼 확보한 국비 50억원에 시비 50억원을 더해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560㎡ 규모로 25m 5레인과 유아 풀을 갖춘 수영장, 농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 시설 등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평등산단에서도 100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 있는 개방형 체육관을 조성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